

디지털 시대,
내 생애
첫 디지털 독립출판

디지털 독립출판, 나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다.



안녕하십니까, 탄현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 은정규입니다.

'디지털 시대, 내 생애 첫 디지털 독립출판'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들이 지난 6개월 동안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발걸음을 내디딘 이 소중한 결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번 책자는 단순한 세대의 작품을 넘어서, 우리 지역사회와 시대적 변화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급격히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기술들은 우리가 소통하고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역량이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단순히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번 '디지털 시대, 내 생애 첫 디지털 독립출판' 활동은 바로 그러한 목표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자신의 생각과 목소리를 표현하고, 나아가 하나의 독립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단순히 글을 쓰고 이미지를 편집하는 것을 넘어서, 디지털 시대의 주체로서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이번 활동은 지역사회와 청소년들이 함께 상호작용하는 중요한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며,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스스로 모색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독립출판물은 그 자체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한 실천적 예시이며,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얼마나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탄현청소년문화의집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디지털 시대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올바르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책자를 통해 청소년들이 느꼈던 경험과 성찰이 지역사회의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기를 바라며, 그들이 만들어갈 더 밝은 미래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 차

인사말

- 센터장 인사말 05
- 담당자가 전하는 말 07

사업배경과 목적

08

프로그램 개요

- 키워드로 디지털 독립출판 10

추진일정 및 세부내용

- 우리들의 지나온 날들 12
- 이런 걸 배웠어요 14
- 여름방학특강 <내가 만든 종이책>
 - 5인5답 20
 - 5인5책 24

지도인력

- Talk Talk Talk <디지털 독립출판> 34
-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참여자 만족도

- 만족도 및 핵심 역량 결과 42
- 핵심역량 사전/사후 조사 결과 44
- 종합분석 46
- 마무리하며 48

부록 1 디지털 문집

52

부록 2 여름방학특강 개별 작품

68

담당자가 전하는 말

디지털 시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를 읽고, 비판하며, 나아가
청소년만의 메시지로, 청소년의 목소리로!

'디지털시대, 내 생애 첫 디지털 독립출판' 사업을 담당한 송병준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열정적인지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디지털 독립출판이라는 개념이 조금 낯설고 어려울 수 있었겠지만, 청소년들이 한 걸음씩 스스로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그 결과물을 손에 쥐었을 때 보여준 뿌듯함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책을 읽고 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정보를 읽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나아가 나만의 메시지를 담아내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번 활동을 통해 그 능력을 실질적으로 연습하며, 스스로의 목소리를 담은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과정이 참가자분들에게 큰 성장이 되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이 책자가 지역사회 곳곳에서 소개되고, 많은 분들에게 읽히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느꼈던 감정과 생각들이 함께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자는 그들의 이야기이자,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작품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열정과 끈기는 분명히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이 나아갈 길에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의 멋진 도전을 지켜봐 주시고, 이 책자가 우리 지역의 문화적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들이 만들어낸 이 작은 출판물이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새로운 시각을 전해줄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사업배경과 목적

추진배경 및 근거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 현 청소년 세대는 디지털 활용 환경에서 성장하여 일상생활 전반에서 디지털 및 온라인을 활용하고, 관련 기기 사용에도 능숙한 세대로, 디지털과 함께 성장하여 디지털문화에 익숙한 세대이며, 관련 온라인 활동 및 기기 활용에도 능숙하다.
- 디지털 환경 상 신속한 반응·소통을 추구하며, 온라인·SNS 등을 통한 소통·협업, 공통관심사 공유 등을 중시하는 특성을 가진다.

청소년의 수요가 다양화, 여러 분야에의 활동 희망

- 분야별로는 문화·예술, 모험·개척 등에 대한 수요가 높고 디지털 확산 등에 따라 과학·정보 관련 분야 관심이 지속 높아지는 상황이다.
- 또한 청소년이 이전보다 개인 능력에 대한 가치를 높게 두고 있어 개인 역량제고 및 관련 활동에의 관심 증가하고 있다.

기존 소통방식

한정된 분야, 제한된 시·공간, 제한된 참여



디지털 환경 속 소통방식

다양한 분야, 시공간적 유연성, 누구나 참여

민주시민으로서 성장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디지털 기기와 문화가 일상 깊숙이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디지털 문화와 연동된 시민역량이 주요한 교육의 화두로 등장한다.
-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라 디지털미디어 속에서 다양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함으로써 디지털 시민 역량을 함양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청소년 디지털역량 활동 강화 강조

- 디지털 기반 활동 기회 확대: 청소년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해 디지털 청소년활동 모형을 개발하고, 관련 활동 콘텐츠 개발·제공한다.
-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활성화: 공교육을 통한 디지털 교육 기반 마련 위해 단위 학교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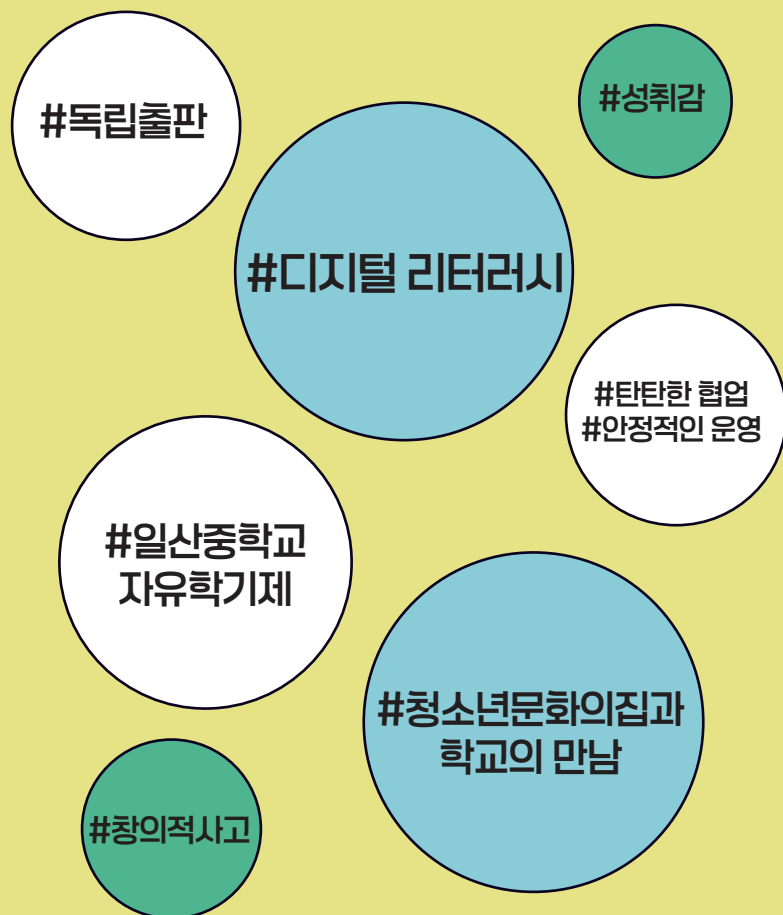
목적 및 목표

- 청소년들의 독립출판 과정 참여를 통해 읽고 쓰는 역량을 함양하여 디지털 미디어리터러시를 배우고 건강한 디지털 시대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마련한다.
- 해당 과정을 통한 청소년 핵심역량 비판적 사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시킨다.

키워드로 보는

디지털 시대, 내 생애 첫 디지털 독립출판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시대, 청소년들은 온갖 정보의 홍수 속에 빠져 살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그 정보를 나만의 목소리로 바꿀 수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탄현청소년문화의집에서 시작한 "디지털 시대, 내 생애 첫 독립 출판"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글을 쓰고 출판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물했어요. 그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얻은 것들을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 볼게요!



프로그램 개요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란 인터넷, 스마트폰, 소셜 미디어,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도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것 모두를 의미해요. 디지털 기술, 요즘 애들 정말 잘 다루죠? 하지만 기기를 잘 쓰는 것과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건 별개예요.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 전문강사를 섭외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청소년들은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공하고 해석할지 배우게 됐어요. 디지털을 똑똑하게 쓰는 법, 이제 알게 된 거죠!

#독립출판

독립출판이란 출판사의 기존 제작 방식에서 벗어나 작가 개인이 직접 기획부터 편집과 디자인 및 마케팅 등 전 과정을 혼자 도맡아 책을 만드는 출판 방법이에요. 그냥 읽는 것만 해도 벅찬데 내가 직접 쓴 글이 책으로 나온다? 이게 바로 독립출판의 매력! 독립출판 강사와 함께 청소년들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아 한 권의 책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그 책을 손에 쥐었을 때 느낀 그 성취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일산중학교 자유학기제

이번 독립 출판 프로젝트에 일산중학교 청소년들이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이 모든 건 자유학기제와 연계되어 탄현청소년문화의집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우수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된 덕분이었어요. 자유학기제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인데, 이번 프로젝트는 그 취지에 딱 맞는 활동이었답니다. 일산중학교 청소년들은 이 기회를 통해 직접 출판 작업을 하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세상에 내보낼 수 있었어요!

#청소년문화의집과 학교의 만남

탄현청소년문화의집과 학교,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사실, 학교와 청소년문화의집이 이렇게 만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자유학기제 덕분에 그 틀이 깨졌어요! 탄현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에게 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싶어 했고, 일산중학교는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였죠. 두 기관이 서로 협력하면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탄탄한 협업 #안정적인 운영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일산중학교에서 직접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어요. 학교와 청소년문화의집이 협력하면서 학교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었고, 이 덕분에 학생들도 익숙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죠. 20회기 정도의 긴 여정을 함께하면서, 학생들은 점점 더 자신감이 생기고 핵심 역량(비판적 사고, 디지털미디어리터러시)을 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창의적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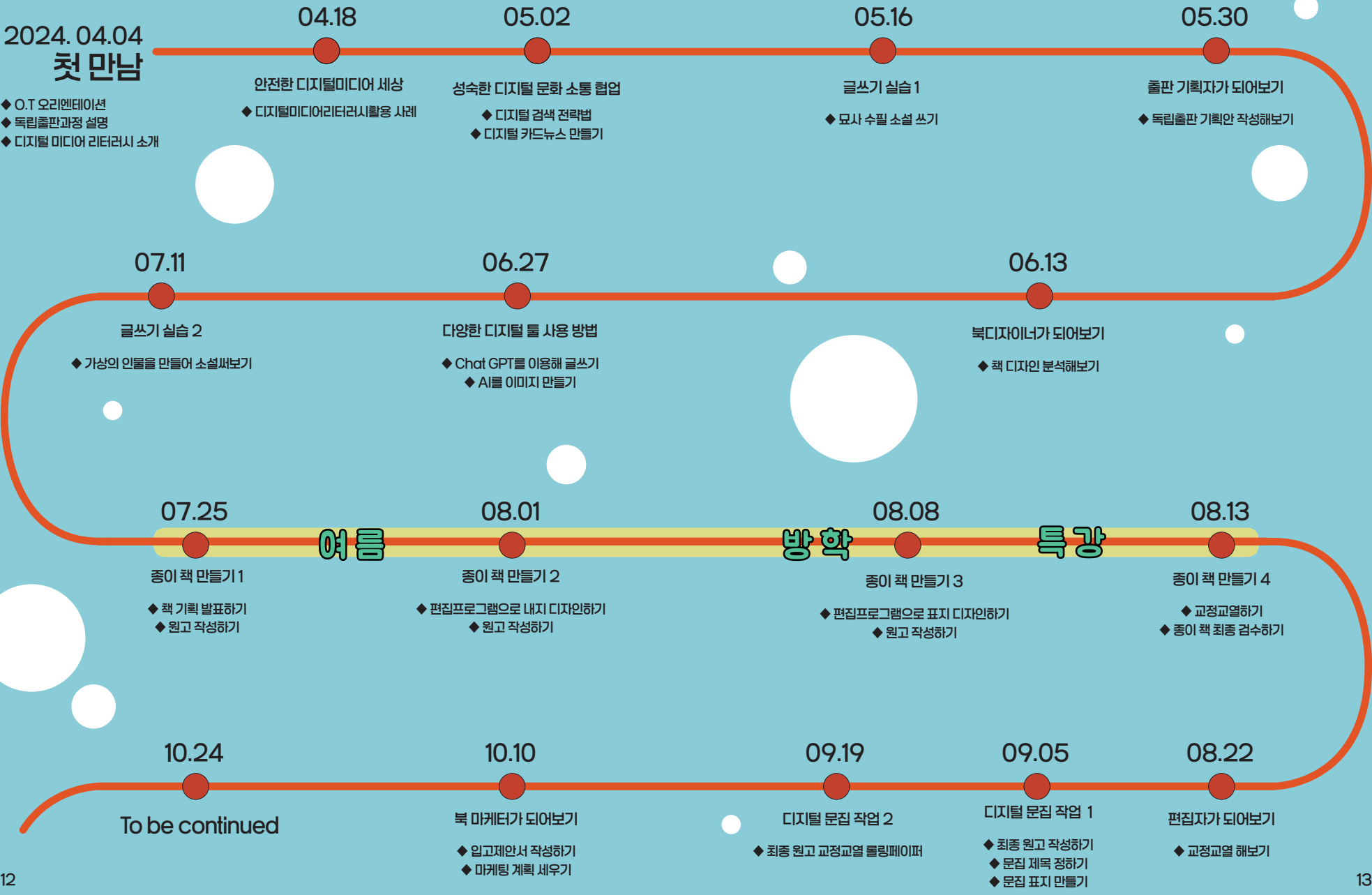
책을 만드는 데는 단순히 글만 잘 쓰는 게 아니라, 창의적인 사고가 필수죠! 표지 디자인부터 편집까지, 청소년들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냈어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자연스럽게 터득한 셈이죠.

#성취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해냈다는 그 기분! 책 한 권을 완성한 청소년들은 큰 성취감을 느꼈어요. 이 경험이 앞으로 다른 도전에도 자신감을 심어주겠죠? "나도 할 수 있어!" 이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았을 거예요.

우리들의 지나온 날들

추진일정 및 세부내용



이런 걸 배웠어요

일산중학교 청소년들의 수업 후기

04.18 안전한 디지털미디어 세상

박유승

가짜뉴스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스스로 자료를 분석해 사실과 거짓을 분별해보니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박효진

오늘 가짜뉴스를 배웠고 진실이 아닌게 매우 많았다. 다음 수업도 많이 기대된다!

양현준

허위뉴스에 대해 검열했다. 어려웠지만 고수가 되었다. 나는 검열왕이 될거다.

성주현

이 세상에서 많은 인터넷 미디어사이트가 있지만 그것이 모두 팩트는 아니란걸 알았다.

김유정

가짜뉴스를 구별하는게 재미있었다.

05.02 성숙한 디지털 문화 소통 협업

정소연

오늘은 검색 전략법에 대해 배웠는데 오늘도 역시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카드 뉴스 만드는 것도 정말 새롭고 신기한 경험이었다. 역시나 오늘도 간식을 주셔서 그것도 맛있게 남남했다. 갈수록 점점 다음 수업이 기대되고 설렌다.

이예지

2번째 동아리 시간은 모둠활동을 많이해서 친구들의 다른 생각을 알 수 있어 좋았다. 또 출판에 관한건 아니더라도 유익한 내용을 알 수 있어서 기초를 다진 것 같았다.

황아연

검색전략과 콘텐츠 큐레이션에 대해 배웠다. 마지막으로 카드뉴스를 만들며 마무리 했다. 이제 디지털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이전보다 올바른 디지털 사용법에 대해 관심이 더 생겼다. 그래서 좋은 경험을 한 것 같다.

05.16 글쓰기 실습 1

이찬규

오늘은 묘사, 수필, 소설을 쓰고 너무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은근 재밌고 신나서 너무 좋았다. 오늘처럼 다음에도 신나고 재밌길 기다린다.

정소연

글쓰는게 마냥 어려울 줄 알았는데 해보다보니 생각보다 재미도 있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다. 키보드에 손을 올리니 정말 술술 써졌다. 글쓰기에 대해 흥미가 생긴 것 같아 정말 좋았다.

김수민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직접 쓸 수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정소연

오늘은 내가 직접 책에 대해 기획을 해보았다. 책을 기획하는 건 오로지 그 책 안의 내용만을 기획하는 건 줄 알았는데 주제, 장르, 출판의도, 예상독자, 디자인 등등 생각한 것보다 몇배는 더 많은 것들도 기획해야하는 부분이 인상깊었다. 오늘 책을 기획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흥미로워서 앞으로의 수업이 기대된다. 책을 빨리 만들고 싶다!!

05.30 출판 기획자가 되어보기

황아연

오늘 책을 기획해보니까 앞으로 어떤 책을 쓸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어서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된다. 비록 부제목과 제목은 아직 떠올리지 못했지만 글씨체, 책 크기, 출판의도등을 다 같이 기획할 수 있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든다. 나는 책 내용이 바뀌더라도 이 기획을 최개한 그대로 가져가고 싶다. 나중에 글을 쓸 때 꼭 멋진 책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실그림

오늘 나만의 책을 어떻게 만들지 구성했다. 책동아리는 무엇을 할지 늘 기대가 된다.

서소민

내 이야기를 직접 구성하고 생각해 보니 너무재밌었고 빨리 다음주가 됐으면 좋겠다^,^

06.13 북디자이너가 되어보기

장유은

책표지 디자인을 보고 분석을 했다. 베르베르의 행성을 분석했는데 저도 이런 이색적인 표지를 만들고 싶다. 뿌잉-

박유송

책 디자인은 그냥 책 디자인인 줄 알았는데 책등, 표지, 날개 또 내부 디자인이 엄청 많아서 신기했다.

심민아

책 디자인에도 신경써야할게 많다는 걸 알았다. 내지구성, 위치 등등 디자이너들이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김예리

오늘은 책의 표지 디자인에 대해서 봤다. 책 디자인은 생각해서 넣을 게 되게 많았다. 나도 나만의 멋진 표지와 멋진 책을 만들고 싶다.

김유정

책의 디자인적 요소들을 분석했다. 이번 시간이 나에겐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었다. 갖고 온 책을 분석하는 건 몰랐지만 그래도 재밌었다. 특히 책에는 많은 요소들이 합쳐져 생긴다는 게 흥미로웠다. 나도 정말 독자들이 좋아할만한 책의 표지 디자인과 내용을 만들어보고 싶다!

06.27 다양한 디지털 툴 사용 방법

장유은

Chat GPT는 신이다. (소설한번 기가 막히게 쓰네 이런)

정소연

오늘을 여러가지 AI에 대해 배웠다. 오늘 chat GPT로 책도 만들어보고 패들렛 기능으로 AI 책 표지도 만들어보았다. AI의 여러가지 기능들이 인간보다 똑똑한 것 같아 흥미로웠다.

박유송

ai를 활용해서 글을 쓰고, 책의 표지를 만들었는데, 내가 쓰는 책이 정리 되는 거 같아서 뿌듯했다.

07.11 글쓰기 실습 2

양현준

오늘 모두와 함께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쓰고 무슨글을 쓸지 영감이 떠올랐다.

김예리

주인공의 MBTI나 키 나이 등등을 정해서 가상의 인물을 만들고 글을 썼는데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정소연

내가 방학 동안 원고를 작성하여 책으로 출판할 책의 여러가지 세부적인 것들을 작성하고 확정했다. 이제는 드디어 내가 책을 만드는구나 싶기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책을 직접 작성하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출판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가는 것 같아 좋았다. 오늘 수업은 방학 전 마지막 수업인데 1학기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알아갔고 또한 더욱 관심도 생겨서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나의 책을 출판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이다. 곧 만들어질 나의 책이 기대되고 설렌다.

심그린

오늘도 재밌는 수업이었다. 1학기 마지막인데 빨리 선생님을 보면 좋겠다.



08.22 편집자가 되어보기

이예지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어떻게 고치고, 또한 그 종류가 무엇인지를 알았다. 생각보다 고쳐야 할 게 많아 조금 어려웠지만 재밌기도 했다.

신민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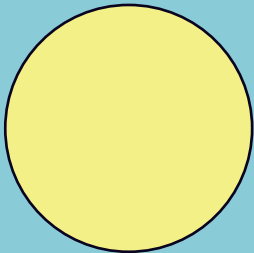
알맞은 문장을 쓰는 것도 꽤 조건이 많다는 걸 알았다. 출판에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양현준

오늘은 친구들과 오류 문장을 만들고 편집자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다.

김예리

교정교열을 배우고,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고치는 수업을 했다.



09.05 디지털 문집 작업 1

정소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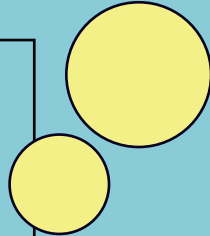
오늘은 책 최종 원고를 작성하였다. 이제 드디어 책이 나온다는 게 실감이 난다. 우리 모두의 책 이름은 '우리의 소원은'이다. 빨리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심그린

오늘 같이 만들 책의 제목과 표지 만들기를 했다. 난 오늘 표지만드는데 제일 재밌었다.

이예지

우리가 만드는 책에 대해 더 자세히 정했다. 책에 들어갈 내용과 제목을 모두 투표로 정했다. 이제 남은 건 표지밖에 없는데 제목과 어울리는 바다가 들어간 사진이면 좋을 것 같아서 바다를 표지 주제로 만들고 있다. 얼른 책이 나와서 보고 싶다:)



09.19 디지털 문집 작업 2

정소연

오늘은 친구들의 소설들, 시도 읽어 보았다. 다른 친구들의 소설도 너무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밌었다. 이렇게 나 많은 친구들이 글을 잘 쓰는 줄 몰랐다. 오늘도 너무너무 재밌었고 공책이 만들어진다는 게 재밌다.

장유은

글을 피드백 받으니까 재미있었다. 애들 의견도 들을 수 있고.

신민아

서로 각자 글을 돌려보면서 롤링페이퍼를 만들었던 게 재미있었다.

황아연

이 동아리는 말 그대로 아름다운 활동이었다. 내 꿈은 소설작가다. 그렇지만 부끄럽게도 좋은 글을 내놓지 못하였다. 게다가 내가 몇 시간 동안 열심히 만든 표지 4개가 다 선택을 받지 못 하였다. 그래서 기분이 우울하고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내 생애 첫 디지털 독립출판의 경험을 디딤돌로 삼아 나의 꿈, 나의 운명을 이루려고 한다. 나는 이 동아리의 경험, 셀레임, 기쁨, 이 동아리에서의 느낌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추진일정 및 세부내용

10.10 북 마케터가 되어보기

김수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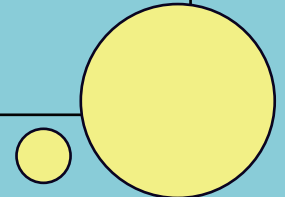
마케터는 복잡하면서도 맛있는 일이었다. 또 다른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이예지

오늘 책을 마케터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또 어떻게 홍보를 할지 생각했다. 예전부터 디자이너, 작가 등의 여러 시점에서 '책'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았는데 역시 모두 다른 직업이라서 다양한 생각들이 떠올랐다. 개인적으로 다음엔 출판사 사장의 입장이 되보았으면 좋겠다.

장유은

오늘은 마케팅에 관한 내용을 배웠다. 어떤 사람에게 팔아야 하는지, 또 어느 책방에 팔아야 하는지 등을 논의했다.





INTERVIEW

청소년 독립출판작가들 5인 5답

여름방학특강을 자발적으로 지원해 종이책 출판 방법을 배웠어요

Q1 방학특강활동하면서 느낀 점

장유은 원래 편집디자인프로그램 '퍼블리셔(MS Publisher)'라는 앱이 있는지도 몰랐고 앱을 어떻게 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독립출판 특강에서 여러 기능들을 배우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한 64.7652%정도?) 여러 기능들을 배우고 사용하며 새로운 기능들을 알아가는게 재미있고 새로웠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경험을 할수있는 기회가 온다면 다시 한번 최선을 다 해 해보고 싶습니다.

박유송 디지털 독립출판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정말 책을 낼 수 있을지 의심했지만, 내 생각을 글로 풀어내고, 책으로 완성하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요. 또한, 디지털 도구를 다루는 능력도 더 발전한 것 같아요. 특히 출판 과정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법도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황아연 책을 쓰는 것이라는 것은 정말 어렵고 미스테리라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스테리를 통해 여러가지를 깨달았는데 그것은 바로 책의 생명이라는 것 입니다. 책은 작가들이 생명을 불어넣어 만든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서소민 책은 생각나는대로 워드 같은데에 적어서 인쇄해서 책내면 되는줄 알았는데 과정이 어려워서 놀랐고, 상상력과 생각하는 능력이 더 좋아진것 같습니다.

이예지 전 이번 독립출판 활동을 하며 얻은 건 표현력의 향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전하려는 뜻을 더 생생하게 전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서 단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문장의 끝맺음이 더 좋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내 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게되어 내 글의 문제점이나 장점 등을 알게되어, 문제점은 고치고 장점은 부각시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Q2 최선을 다한 부분이 있다면?

장유은 제가 최근에 많은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이 있습니다. '책의 첫 문장이 여러가지 인상을 줄수가 있구나,' 라고요. 그래서...최근에 제일 신경쓰는 부분이 '첫 문장은 강렬해야 해...' 입니다. 거의 강박정도로 중요시 하고 있는데, 책의 첫 문장을 쓸때 뇌를 꺼내서 아이디어를 쥐어짜내고 다시 머릿속에 넣어서 첫문장을 최선을 다해서 썼습니다.

박유송 내가 최선을 다한 부분은 바로 글의 내용입니다. 평소에 생각만 했던 이야기들을 글로 풀어내는 게 쉽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내 생각을 담은 글을 완성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글을 쓰면서 주제에 맞는 구성을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내 이야기가 더 재미있게 전달될지 고민했던 시간이 정말 값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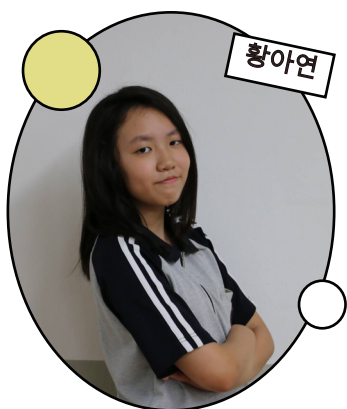


여름방학특강 내가 만든 종이책

황아연 이번에는 특히 표지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서소민 방학특강을 성실하게 참여하러 노력했습니다.

이예지 무엇보다도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감탄할 만한 문장'에 집중했습니다. 저의 경우 책 한권을 읽을 때 주로 마지막 문장이나 저에게 도움되는 교훈이 있다면 그 책이 더 깊은 인상이 남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저의 책을 생각하면 책의 내용보다는 "아, 그 문장!" 이라고 깊은 의미를 담고있는 한 문장을 기억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 비유나 표현, 혹은 교훈을 제 나름대로 책에 담아보며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Q3 가장 인상 깊은 점은?

장유은 제출판사 없이 내가 책을 써서 책을 출판한다...라는 것 자체가 인상 깊었습니다. 보통 책을 출판한다, 라 함은 출판사에게 원고를 넘기고, 검토한 다음, 책을 인쇄하고 출판한다 라는 과정일텐데, 출판사가 없이 내가 책을 써서, 인쇄하고 책을 받는다 라는 것 자체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박유송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완성된 책을 손에 쥐었을 때의 성취감이었어요. 디지털 작업도 좋았지만, 직접 내 이름이 적힌 책을 손에 쥐었을 때의 그 기분은 정말 대단했어요. 친구들 앞에서 내 책을 자랑할 수 있는 순간이 너무 자랑스러웠고, 그때 느낀 감정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황아연 책 주제를 직접 정 할수있어 매우 놀라웠습니다. 진짜 쓰고싶었던 내용의 책을 쓸수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서소민 친구들과 각자 글을 나누어 읽으며 수정 첨삭하는게 재미있었습니다.

이예지 바로 색다른 프로그램 '퍼블리셔'를 썼다는 점입니다. 원래 컴퓨터를 조금 다룰 줄 알지만 아예 처음인 프로그램에 글을 써보니 생각보다 막막하고 이용방법도 잘 몰랐지만 진짜 작가들이 쓰는 프로그램에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재밌고 신나는 경험이었습니

추진일정 및 세부내용

Q4 활동하면서 어려웠던 점

장유은 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70장 이상을 쓰는 것은 정말정말 힘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글을 쓰는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박유송 나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내 머릿속에서는 떠오르지만, 그걸 글로 풀어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번 수정하고 다시 써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죠. 하지만 그 과정 덕분에 글쓰기 실력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황아연 글을 쓰는 동아리에서 글쓰기를 집중적으로 배울 줄 알고 기대했는데 실제로 써와서 좀 아쉬웠어요. 대신 출판의 여러 과정에 대해 배웠습니다

서소민 책을 만들 때,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전체적인 크기를 정확히 산출하는 부분이 어려웠어요.

이예지 아무래도 마감기한을 지키는 일일겁니다. 사실 저는 일을 미루는 습관이 있는데, 이 글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도와주시는 선생님과 같이 하는 친구들을 생각하며 늦은 시각까지 키보드를 두드리는 일이 신체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만큼 보람 것 같습니다.

Q5 앞으로 본 교육과정에서 배운 것을 어떻게 어떤 활용하고 싶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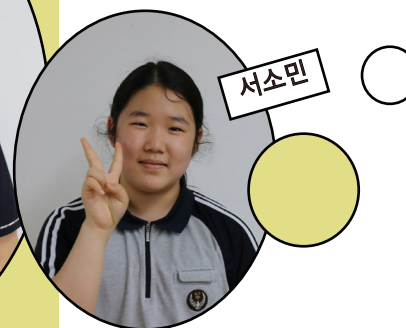
장유은 나중에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도 모두 끝났을 때면, 다시한번 제가 혼자서 독립출판을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그 때가 되면 지금 보다 조금 더 실력이 향상되어 꿈꿔왔던 책을 다시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박유송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경험들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글쓰기 활동에 도전해 보고 싶어요. 특히 디지털 매체에서 글을 쓰거나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일에 관심이 더 생겼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나중에 블로그나 SNS에서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황아연 학교 동아리에서 배운것을 활용해보고싶어요. 좋은 경험이어서 어떻게든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진짜로!!^^

서소민 문학 관련시간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예지 꼭 출판 같은 활동이 아니더라도 저의 발전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좋은 선생님들과 소규모로 운영되는 체계가 좋아서 더욱 더 작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예전의 저보단 더 성장한 사람이 됐습니다. 만약 이런 기회가 다시 있다면 망설이지 않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5인 5책



서지정보

- ◆ 제목: 애로우
- ◆ 작가: 장유온
- ◆ 카테고리: SF소설
- ◆ 책 사이즈: 130x200
- ◆ 쪽수: 37쪽

아직 미숙하지만
재미있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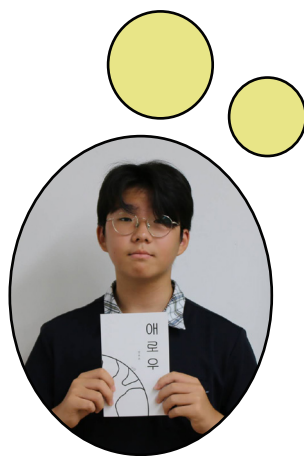
장유온 어렸을 때부터 SF영화와 외계인을 좋아했던 터라 자연스럽게 SF관련 책들을 읽고 쓰게 되었습니다. 취미로 그림도 그리고 있습니다.

줄거리

모래사장 위에서 눈을 뜬 우주선 조종사 조쉬 마이크, 그는 깨어났을 때 기억을 잃어버린 상태였고 기억을 찾기 위해 우주선을 뒤지던 중 카메라를 발견하게 되고 카메라로 녹화를 시작한다. 그중 우주선의 선장 와드 그린을 만나고 그녀와 함께 생활하며 자신의 기억들의 전반을 되 찾고 왜 다른 행성에 왔는지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궤도선 애로우로 돌아 가기 위한 모험을 시작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SF소설을 좋아하는 사람



책 속 한 문장들

2p 나는 우주복을 입고 모래사장에 대자로 누워 있었다.

3p 여기가 어디인지 알아내야 한다.
그것이, 지금 나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8p '음 지금 재료를 보니까 제대로 된 장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물건들을 이용해 장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주선 조종사 조쉬 마이크와 선장 와드 그린의 외계 쌍둥이

지구 행성 생존기

책 속 한 문장들

5p 이렇게 예쁜 가로수길을 따라 느긋하게 걸으면
마음도 같이 느긋해 진다.

38p 친구라는 게 바로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자신의 일처럼 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는 생각이.

45p 셋벌아 그동안 미안했어. 그 이후로 반성 많이 했어.
내가 질투 때문에 정신이 나갔었나봐. 진짜 미안해.

일상에서 마주한 작은 감정들을 소중하게 담아낸

첫 번째 이야기

작가 소개

박유송 안녕하세요, 박유송입니다. 일상 속에서 마주한 다양한 순간들을 글로 풀어내는 것을 좋아하며, 이번에 처음으로 독립 출판에 도전했습니다. 아직은 서툴지만,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글로 적어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줄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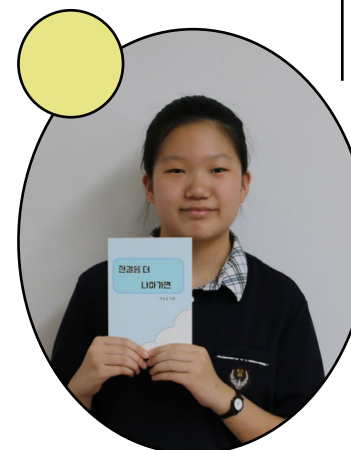
일상에서 마주한 감정과 경험들을 솔직하게 풀어낸 이야기로, 작은 사건 속에서 커다란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담았다. 처음으로 글을 쓰고 출판하는 과정을 통해 느낀 성장과 성취감이 담겨있다. 독자와 함께 이 여정을 걸으며 각자의 이야기를 떠올리길 바란다. 여러 감정들이 이 책의 글을 통해 전달되기를 바란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청소년기의 감정과 고민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 디지털 독립출판에 도전해보고 싶은 사람,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과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 성장과 성취감을 경험하고 싶은 모든 사람.

서지정보

- ◆ 제목: 한걸음 더 나아가면
- ◆ 작가: 박유송
- ◆ 카테고리: 청소년소설
- ◆ 책 사이즈: 135 x 188
- ◆ 쪽수: 47쪽



여러분도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을
소중하게
느끼길 바랍니다

여름방학특강 내가 만든 종이책



서지정보

- ◆ 제목: 루나화이트
- ◆ 작가: 황아연
- ◆ 카테고리: 판타지소설
- ◆ 책 사이즈: 134x203
- ◆ 쪽수: 61쪽

작가소개

황아연 나는 5학년부터 작가가 하고 싶습니다. 웬지 글쓰는게 재미있어요. 특히 소설쓰는것이 즐겁습니다. 계속 연습하던 중 이 동아리가 눈에 들어왔고 작가의 꿈으로 한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줄거리

어떤 강아지는 꿈을 가지고있다. 인간보다 더 나은 꿈을 그런 꿈을 이루기란 힘들다. 그것을 위한 것은 바로 마법이다. 평소 머릿속에 그려왔던 꿈을 꾸는 루나 화이트. 루나는 우정이라는 마법속에서 헤엄친다. 우정이란 마법은 정말 멋지고 미스테리다. 루나의 꿈은 무엇일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용기와 우정에 대해 궁금한 사람,
시간이 많은 사람, 그냥 심심한 사람



용기와 우정의
대립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다 정답일거예요.
다 빛나는
생각들이니까

책 속 한 문장들

이것도 진실일지 거짓일지 모른다.
진실과 거짓 그 중간 어디에서 살고있는 우리.

루나는 새로운 인생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갔다.
마지막 수업은 용기 그 자체였으니까.

그래서 경험이 소중한 것이다.

소녀의 성장
판타지 이야기

책 속 한 문장들



할머니댁, 이젠 추억인 강아지집,
곤충도 많고 바람도 숲내음이 솔솔나는시골
그리고 할머니 밭

작가 소개

서소민 안녕하세요 저는 중1인 학생 서소민 입니다. 저는 어릴때부터 책을 아주 좋아했어요. 저는 초등 6학년 까지만 해도 방학만 되면 해리포터 책을읽었어요. 권 수와 페이지가 많았는데 대략 쉬지않고 12권을 읽은적도 있습니다.그런데 중학생이 되니 시간적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때 동아리 중 독립출판 이라는 동아리 시간을 봤고 참여했죠. 힘들어도 그만큼 상상보다 더더욱 재밌었어요! 방학때 개인책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렇게 저의,저만의 책.'나의 여름 이야기'가 나왔죠. 재미있는 만족스런 시간이었어요.

줄거리

방학을 맞아 할머니댁으로 갔다. 향긋하고 상쾌한 시골의 풀내음이 불어오는 바람이 너무 좋다. 잠자리도 시골이라그런지 많고 종류가 다양하다. 시골오면 항상 반겨주던 진주. 그리고 그뒤에 온 못난이(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으셨당~)도 무지개다리를 건너지 오래다.그래도 덩그러니 남겨진 강아지 집을 지금도 뻗히 바라보곤 한다. 시골에서 먹는 아이스크림은 항상 뭔가 더 맛있는것같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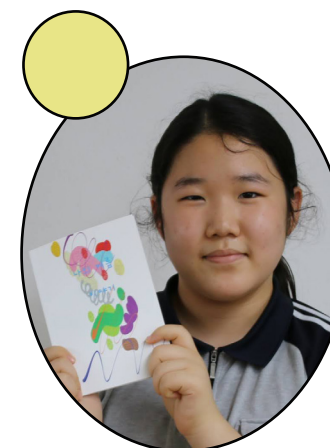
책의 의미를 추측하고 싶은사람
간단히 뭔가 보고싶은 사람
몽글몽글한 그림이 보고싶은 사람

추측과 창의성으로
제 책을 자유롭게
해석해보세요



서지정보

- ◆ 제목: 나의 여름 이야기
- ◆ 작가: 서소민
- ◆ 카테고리: 그림책
- ◆ 책 사이즈: 195 x 133
- ◆ 쪽수: 24쪽





서지정보

- ◆ 제목: 긴 여정 뒤에 얻는 것은 무엇일까
- ◆ 작가: 이예지
- ◆ 카테고리: 판타지소설
- ◆ 책 사이즈: 128x205
- ◆ 쪽수: 61쪽



작가 소개

이예지 현재 일산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1학년, 2011년 생 이예지입니다. 예전엔 하루마다 장래희망이 바뀌는 재밌는 사람이었지만 중학생이 되면서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 하고 싶은게 없어졌지만 글 쓰는 건 여전히 색다르고 재밌는, 1% 가능성으로 작가를 꿈꾸는 작가 지망생입니다. 본격적으로 글을 접하게 된 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인 것 같은데, 그 때부터 글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펜을 잡게 되었습니다.

줄거리

어쨌든 저쨌든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 권시연. 저승에서 아무생각 없이 존재하는 저승사자.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어 보이는 둘이 만나며 둘은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고 미래로 향한 진취적인 발자취를 남기려 한다. 하지만 죽은 사람들도 감정은 있는 법. 감정과 고뇌속에 살아가던 그 둘은 이승에 대해, 혹은 자신에 대해 후회하며 과거에서 떠나고 현재를 살게 되는 미래지향적 판타지 소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색다른 판타지 소설을 읽고 싶은 사람
자신의 앞날이 너무나도 걱정되는 사람
갑작스러운 장르 변환을 좋아하는 사람
짧은 시간에 생각할 수 있는 책을 읽고 싶은 사람

자신의 미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들어갔어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짧은 책이라든 한 번 읽고 본인에 대해 너무 깊게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책인 만큼 문장 하나씩 심도있게 고르고, 배열하고, 연결해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쓴 글이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책 속 한 문장들

P. 5
그때 나와 세상은 마치 얼음속에 들어 있는 것 같았다

P. 34
'저는, 그냥 죽으라는 건가요?'
은하가 차분한 듯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P. 56
우리 둘은 서로 다르지만서도
비슷한 아주 단단한 결심을
마음속에 품은 채 앞으로의 날들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하루 아침에 저승사자와 만난,
즉 창창한 앞날을 두고 운명해버린
20대의 저승에서 펼쳐지는
이승엔 없는 이야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송병준 (탄현청소년문화의집 차장)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우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디지털 시대, 내 생애 첫 독립출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을 담당하시는 핵심 선생님 세분을 모셨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운영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담당자이자 고양시에 위치한 <탄현청소년문화의 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병준입니다. 이 사업에서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강의는 아니지만 행정, 예산 같은 보조적인 역할을 계속 하면서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홍지영 (일산중학교 부장교사)

저는 일산중학교에서 청소년의 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또 1학년의 생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부장교사 홍지영이라고 합니다. 일산중학교에서 근무한 지는 4년째 됐고요. 저는 디지털 리터러시 전문가가 아니지만 전문 강사님들을 모시고 이 사업을 일산중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디지털 리터러시 강사)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진로교육지도자를 시작으로 9년차 코딩교육 강사로 활동 중인 김미영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교육 콘텐츠를 가르치면서 다양한 분야를 다루다 보니 융합교육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행해야 할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디지털 리터러시 전문가 자격을 준비하였고 관련한 교육들을 진행하며 활동 중인 디지털 리터러시 강사입니다. 일산중 학생들과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다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허지수 (독립출판 강사)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허지수라고 하고요. 이 사업에서 독립출판 강사로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출판, 책디자인, 글쓰기 등 독립출판과 관련해 알려주고 있어요.

TALK TALK TALK 디지털 독립출판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공교육
○ 공공기관
디지털 기술
○ 문해력

디지털 시대에 사는 청소년의 환경과 현실이 궁금합니다

병준 첫 번째 질문은 요즘 청소년들 현재 상황이 궁금합니다.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의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은 어떻게 성장하고 있나요

지영 요즘 청소년들은 컴퓨터,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데 너무 능숙해요. 반면 디지털기기로부터 얻은 정보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능력들은 굉장히 부족해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이미 부분별한 영상이나 게임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게임에서 청소년이 주고받는 언어가 실제 사용하는 언어와 동일하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문제는 게임과 디지털 영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정제되지 않는 언어인 경우가 많아요. 또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노출도 많이 되죠. 또 유튜브 숏츠(10분 이내 짧은 영상 콘텐츠)같은 짧은 영상 콘텐츠들이 디지털환경에 많아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글을 이해하지 못해요. 청소년들이 쓴 글도 저희가 이해하기 어렵죠. 또다른 문제는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받았는지에 따라 청소년 안에서 격차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병준 디지털 리터러시 전문가 김미영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영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처럼 습득은 매우 잘 하지만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순간 즐겁고 재밌다는 거에 만족하는거죠.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는 유튜브 쇼츠와 같은 짧은 동영상에 뇌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어요. 많은 전문가들도 뇌를 망가트리고 노화를 촉진한다는 우려가 계속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뇌파를 측정하면 솜을 볼 때 전두엽의 활성도가 매우 떨어진다는 것도 이미 보고가 되어 있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문해력도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리터러시 능력(문해력)을 강조하는 교육과 학습이 더 필요하다는 현실을 말하고 싶어요.

이번 사업에서 청소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병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중 청소년에게 요구하는 게 두 가지예요. 디지털 문해력을 키우는 거 그리고 디지털을 잘 활용하게 만드는 거. 거기에 고민 지점이 항상 있어요. 디지털 기술이 너무 빠르게 성장하니 시대를 빨리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 것들까지도 효율적으로 빠르게 만들고 재미있게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도 해요. 반면에 미디어 윤리나 인간 존엄성,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함께 교육하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디지털 기술을 잘 못 활용하게 되고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때문에 상반되는 두가지 방향성을 교육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필요성을 확실히 느꼈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전문가이신 미영 강사님께 리터러시 교육 과정을 온전하게 맡겼어요.

지수 디지털을 이용하는 기술을 알려주는 동시에 이를 활용할 수 있게 청소년의 사고력, 자기표현력, 창의력을 키워주는 교육도 필요합니다. 저는 청소년의 사고력, 자기표현력, 창의력을 하나로 '죽대'라고 표현할게요. 저는 인공지능 같은 디지털 기술을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선 청소년 개개인의 '죽대'를 키워줘야 해요. 왜냐면 챗지피티를 활용하면, 그림이라든지, 글이라든지 굉장히 짧은 순간으로 창작의 고통 없이 결과물을 받아 볼 수 있어요. 창의성이나 큰 사고력 없이도 결과물을 쉽게 볼 수 있는 기술이잖아요. 하지만 인공지능을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저작권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창의력도 떨어집니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력은 새로운 창작없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재가공한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서 사고력, 자기표현력, 창의력 등 자신만의 '죽대'를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미영 맞아요. 이미 캔바(canva), 미리캔버스같은 디자인플랫폼은 일산중학교 청소년들도 능숙하게 활용하고 있어요. 미리캔버스만 이용해도 짧은 동영상, 홍보물 같은 걸 바로 만들 수 있죠. 청소년들의 능숙한 기술력에 자기표현력을 넣는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그 기술을 악용하고 빠르게 유포하는 경로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최근 뉴스에서 '딥페이크' 피해 사례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 윤리 교육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청소년들에게 "하지 마"라고만 말하는 건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래, 한 번 해봐. 그런데 결과는 어때? 피해가 발생하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 이게 네 입장이라고 생각 해봐"라고 상황을 연출하는 교육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디지털 기술의 올바른 활용 방법을 청소년들이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사업을 통해 일부 청소년들, 특히 일산중 청소년들에게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입장에서 윤리 개념, 저작권, 초상권에 대해 몇 번씩 생각하게 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또 다른 문제는 청소년들 간의 교육 격차도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잘 진행하는 학교도 있지만, 관련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이 모든 청소년에게 골고루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준 디지털 기술에는 장단점이 있죠. 예를 들어, 딥페이크 같은 문제가 있지만 저는 최근에 ChatGPT를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런 툴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하게 됐어요. 이런 툴을 잘 활용하면 단순히 과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를 인식하는데도 도움이 되죠. 두 강사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모든 이야기를 이번 사업에 담으려 노력했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윤리를 지키는 것, 읽고 쓰는 것, 인공지능을 다루는 실습도 진행했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독립출판을 진행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지영 글을 쓰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스스로 인식하게 되면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병준 이번 독립출판으로 책을 제작 과정에서 특히 의미 있다고 느낀 부분이 있을까요?

지영 청소년들이 글을 쓸 때 독자를 의식하게 된다는 점이 매우 의미 있었어요. 책을 내다 보니, 아무래도 게임에서 쓰던 언어나 편한 표현을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표현이 정제되고 절제되는 언어경험을 하게 되었죠. 또 청소년들이 단순히 글을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작가가 되어 책을 내는 경험과 출판업계에 종사하는 다양한 직업들도 자연스럽게 체험해 본 셈이죠. 이 과정에서 작가라는 직업을 진지하게 생각할 기회를 얻었어요. 특히 '유온이' 같은 친구들은 정말 작가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활동했거든요. 책을 한 권 완성한다는 목표가 있다 보니, 청소년 스스로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책을 내겠다는 목표 자체가 큰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은 청소년들에게 글쓰기 실력뿐만 아니라, 책임감과 진로에 대한 인식까지 높여준 매우 유익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지수 추가적으로! 흔히 책 제작이라고 하면 글쓰기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사실 디자인 요소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단순히 글을 잘 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책의 레이아웃, 여백, 글의 배치 등도 다 고려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프린트만 봐도 여백을 어디에 둘지, 글을 어떻게 배치할지를 청소년들이 직접 고민했어요. 이런 모든



것이 스스로 결정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디자인적인 요소까지도 계속 생각하고 적용해야 했어요. 청소년이 디자인적인 요소까지 신경 쓰면서 창의력과 사고력이 많이 발달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느낀 또 하나의 어려움은 질문을 이끌어내는 일이었어요. 저는 수업 시간에 청소년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게 노력하는데, 그들이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깊이 해야 하고, 그 주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잖아요. 질문이란 생각의 시작이예요. 또 생각은 글의 시작이죠. 청소년들이 질문을 통해 생각을 확장시키는 데에 있어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만큼 더 가치 있는 과정이고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미영 맞아요, 성인들도 사실 이 과정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말주변이 없다"라며 그냥 말을 아끼기도 하고, 듣긴 들었지만 "내가 뭘 말해야 하지?" 하면서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것도 결국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이나 글로 내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과정이잖아요. 천부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도, 글 잘 쓰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요. 모두 배워야 하죠. 선생님과 교류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끌어내고 표현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번 프로젝트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생각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었고, 그런 경험들이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병준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은 한 사람이 나와서 가르치는 형태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 수업에서 제가 선호했던 방식은 협업과 상호작용이 중심이 되었어요. 일단 앓을 때도 동그랗게 원으로 줄 앉아서 서로를 마주 보게 만들고 그리고 동료와 어떤 거를 얘기를 할 때는 같이 집중해서 그 친구의 얘기를 듣고 좀 생각을 말도 해주고. 특히 청소년들한테는 동료와 협력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허지수 강사님이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내려고 많이 노력하셨고요. 저는 이런 방식을 좋아하는데, 청소년끼리 협력하고 서로의 생각을 알아가는 과정이 큰 배움이 된다고 믿어요.

미영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적인 면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술은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고,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급진적으로 변해갈 거예요. 대기업들이나 나노기술 같은 최첨단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듯이, 우리가 그 흐름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청소년들이 디지털 도구들을 잘 활용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인간적인 면을 유지하는 기회를 가졌다는 게 매우 의미 있었다고 생각해요.

독립출판의 과정을 청소년들이 실제로 경험하면서, 그들이 느꼈던 도전과 성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영 청소년마다 정말 다양한 차이가 있었어요. 청소년들이 각자 다르게 생각하고, 그 생각이 표현되는 방식이 너무나도 달랐다는 걸 느꼈어요. 디지털 책을 선택한 청소년도 있었고, 종이책을 직접 제작한 청소년들도 있었는데, 특히 종이책을 제작한 청소년들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종이책을 완성했을 때 그들이 느낀 뿌듯함은 정말 대단했어요. 아무래도 종이책이라는 실체가 있는 결과물을 직접 손에 쥐어보는 경험이 주는 뿌듯함이 컸던 것 같아요. 디지털 책도 중요한 경험이지만, 종이책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결과물이니까요. 책을 손에 쥐었을 때, 그들이 진짜 작가가 되었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성취감은 그들의 자존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실제로 책을 완성했을 때의 그 기쁨은 정말 컸을 거예요.

병준 결과물이 나와했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앞으로 디지털 활동이나 출판물 활용해 청소년 교육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영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청소년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그들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필요하죠.

병준 네, 학교에서 분명히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었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상품인 편집디자인프로그램 '퍼블리셔(MS Publisher)'를 청소년들이 활용하기 어려웠어요. 예산은 분명히 투입되었고, 청소년들이 학교에 신청하면 설치가 제

공되었는데, 신청부터 청소년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데 접근하기 쉽지 않았습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보완해서, 우리가 지원받은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병준 도움이 된 학교행정, 제도도 있었어요. 자유학기제나 동아리활동 덕분에, 청소년들이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청소년 15명을 매번 꾸준히 참여시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죠.

미영 학교 바깥에서는 모집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센터 같은 곳에서 모집을 진행할 때 청소년 참가자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병준 모집 어려움뿐만 아니라, 탈락자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집 과정에서 청소년들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지만, 꾸준히 참여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어요. 처음엔 관심을 보이다가도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학교 측에서 외부 기관과 더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지영 내년부터는 자유학기가 없어지고, 대신 동아리 활동을 통해 1년 동안 창의적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부로 동아리 활동이 포함되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통해 학교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의지와 열정을 가진 청소년들을 모집하고, 청소년 센터와 연계하여 그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연계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교육청이나 관련 기관에서 이런 연계 작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병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지영 가장 큰 문제는 연계를 할 때 명확한 매뉴얼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매뉴얼이 없으니,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지, 공문을 발송해야 하는지, 기안을 올려야 하는지 계속 헷갈렸습니다. 결국 여러 번 전화하고, 내부 기안을 보냈다가 다시 공문을 발송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 업무가 많았어요. 특히 외부에서 강사님을 초청할 때도 행정 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행정 업무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교육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매뉴얼이 있었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쉽습니다.

미영 말씀대로 형식적인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 관련 서류나 성범죄 이력 확인 같은 서류들을 각 학교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가 10개 학교를 간다면, 그 서류를 10번 다 제출해야 하죠. 이런 굉장히 비효율적인 요소입니다. 차라리 경기도 교육청 같은 기관에서 한번 서류를 제출하고, 그 정보를 관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 학교마다 똑같은 서류를 계속 제출하는 대신, 교육청에서 제 정보를 관리하고 각 학교가 필요한 서류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과 노력을 청소년들에게 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중요한거죠.

지수 결핵 및 마약 검사비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강사로써 수업을 진행하려면 여러 동의서와 건강검사 증명서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검사비가 지원이 되지 않아 강사 자비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기도요. 보통 1만 원 미만의 소액이면 알아서 처리하지만 5만 원에서 6만 원 이상의 금액이 되면 학교에서 강사를 하는 것에 대해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마다 운영하는 검사가 달라서, 최악의 경우 검사마다 다른 병원을 가야해요. 병원을 알아보고,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다시 검사지를 찾아오는 것까지 시간적, 육체적 비용도 가볍게 볼 수 없죠.

미영 사실 진짜 필요한 건 청소년 교육이잖아요. 청소년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저의 커리큘럼을 통해 청소년을 더 잘 양성하는 게 중요한데, 정작 그런 부분은 잘 안 보시더라고요. 대신 서류 작업에만 집중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처리해야 할 서류가 많으니 학교 행정담당 선생님도 힘드신 거죠. 1년 단위로 모든 절차를 다시 해야하는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감을 나누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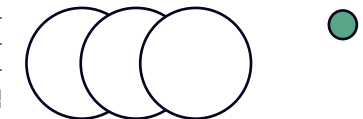
미영 이번 기회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청소년들이 어떤 추론 과정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역량이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고, 저 또한 청소년에게 이런 과정을 제시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서로 다르게 접근되는 걸 보면서, 다음에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겠다는 구상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지영 저는 이과라서 디지털 리터러시라든가, 독립출판이 어렵게 다가왔어요. 청소년들도 이와 비슷하게 어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저도 그런 점에서 공감이 가더라고요. 하지만 청소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끼는 걸 보고 저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또 좋았던 점은 저 스스로가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사실 청소년들을 보면서 이 부분의 심각성을 더 깊이 느끼게 됐어요. "아, 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글을 쓰고 책을 만드는 과정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저도 정말 많이 배웠어요.

지수 저는 사실 학교나 청소년들과 크게 연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정말 큰 감사입니다.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느낌이 들어요.



병준 정말 많은 디지털 도구들이 있었어요. 그중에서도 필요한 도구들이 적절하게 활용되는 결과를 저는 직접 볼 수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새로운 도구들도 등장했고,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찾지 않아서 그렇지, 교과서 이상의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들이 마치 봇터지듯 나오고 있어요. 청소년에게 적절한 수준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더 많이 느꼈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청소년에게 맞는 도구와 콘텐츠를 찾아내는 것이 큰 배움이었죠. 아마 내년에는 더 새로운 콘텐츠와 도구들이 도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 오랜 시간 함께 좋은 말씀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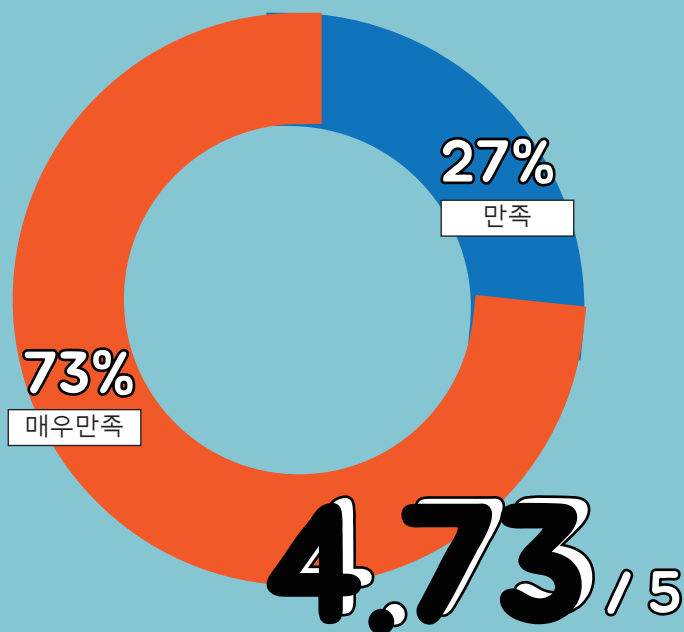
< 디지털 독립출판 > 만족도 및 핵심 역량 결과

□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 ◆ 대상자: 참여지 15명 중 총 15명 응답(응답률: 100%)
- ◆ 내용: 만족도 조사지를 제작하여 조사, 분석함.
- ◆ 측정도구: 탄현청소년문화의집 만족도 조사

전반 만족도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73점(100점 만점 환산 시, 94점)으로 매우 높은 만족도 점수를 받았습니다. 5점 매우 만족(73%), 4점 만족(27%)로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이 만족해주셨습니다.



참여자만족도

4.61 / 5

프로그램

- 5점 만점에 4.61점(100점 만점 환산 시, 92점)
- 출판 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경험을 제공.
-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자들이 큰 만족감을 느낌.
-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흥미롭고 즐거웠다는 피드백이 다수.

지도자

4.87 / 5

- 5점 만점에 4.87점(100점 만점 환산 시, 97점)
- 친절하고 열정적으로 지도, 학생들이 큰 도움을 받음.
- 작가처럼 글을 작성하고 첨삭하는 과정을 세심하게 지도.
- 지도자의 경험과 열정이 참여자들의 배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4.75 / 5

시설환경

- 5점 만점에 4.75점(100점 만점 환산 시, 95점)
- 학교와 일상에서 쉽게 접근가능한 환경이어서 참가가 용이함.
- 책 출판 활동을 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과 지원이 잘 마련됨.
- 참여자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다수.

디지털 지식향상

4.8 / 5

- 5점 만점에 4.8점(100점 만점 환산 시, 96점)
- 디지털 출판 과정을 통해 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이 크게 향상됨.
-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책을 만들고 출판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경험.
- 출판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실제로 적용해보며 지식이 확장됨.

4.6 / 5

디지털 시민의식향상

- 5점 만점에 4.6점(100점 만점 환산 시, 92점)
-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토론하면서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가 강화됨.
- 디지털 출판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
-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시민의식과 책임감을 기르는 계기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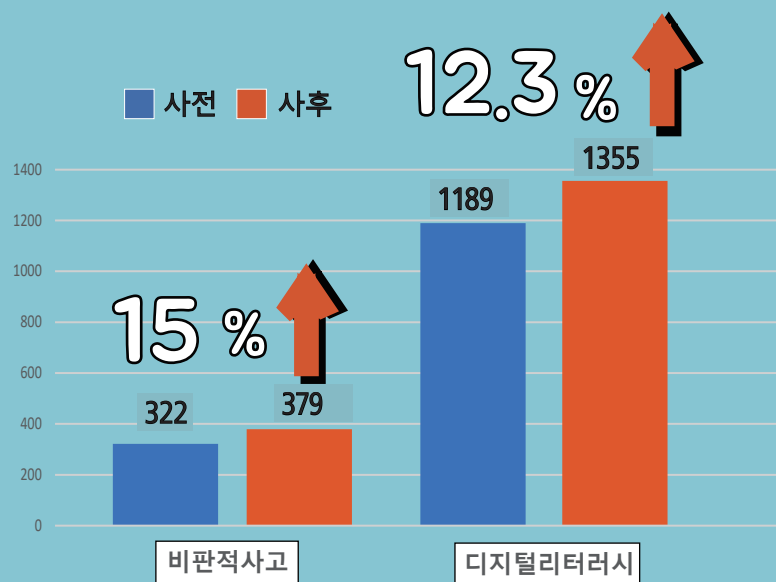
< 디지털 독립 출판 > 핵심역량 사전/사후 조사 결과

□ 2024년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지표(진로역량) 사전 사후 조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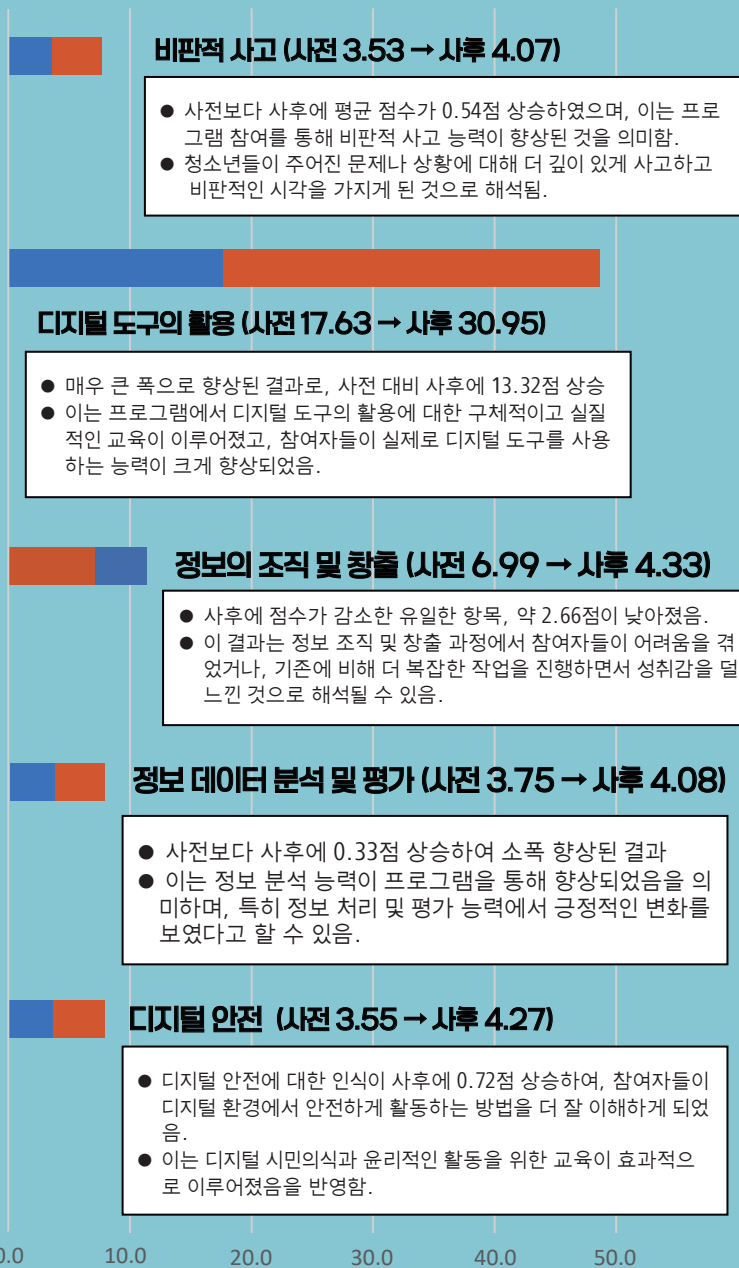
- ◆ 대상자: 참여자 15명 중 총 15명 응답(응답률: 100%)
- ◆ 내용: 사전 15명의 응답 점수의 평균을 내어, 분석함.
- ◆ 측정도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3). 2023년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측정도구.

총 평균 증감률:

12.8% ↑



핵심역량 사전 사후 결과(디지털 세분화)



분석결과

전반 만족도 :

4.73 / 5

총 평균 증감률 :

12.8% ↑

종합분석

- 대체로 프로그램 참여 후 대부분의 항목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며, 특히 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에서 큰 향상을 보임.
- 다만, "정보의 조직 및 창출"에서 점수가 낮아진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

전반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비판적 사고 및 디지털 안전 의식 향상에 큰 효과를 본 프로그램으로 평가할 수 있음.

디지털 시대,
내 생애
첫 디지털 독립출판
디지털 독립출판, 나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다.

〈내 생애 첫 디지털 독립출판〉를 마무리 하며

서 소 민

자신의 상상력을 마음껏표현하고 보여 줄 수있어서 좋았다. 처음
에 나의 생각을 알려주고 책을 쓰고 싶어서 들어왔는데,다른 여
러 용어, 방법들을 알려주셔서 더 재밌었다. 물론 과제가 있어 힘
들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생각을 듣고 읽으니 창의성이 좋아지는
것 같다.

장 유 온

독립출판에 관한 내용을 배워서 좋았다.
아직 수업이다 끝나진 않았지만 재미있고 매번 새롭다.

신 민 아

우리의 생각을 글로 표현해 남길 수 있는 점을 배웠다.
디지털출판에 이렇게 많은 단계가 들어간다는 걸 알았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글로 더 잘 표현할 수 있었다.

참여자 만족도

이 예 지

창의적 활동을 학교에서 접하게 되어 재밌고 참신한 경험이었다.
원래부터 글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하는 활동에 참
가하니 더 글이 좋아지고 일상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되었
다. 결과가 좋아서 뿌듯하고 기뻐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
면 또 하고 싶다.

김 유 정

매우 흥미롭고 유쾌한 경험이었다.

황 아 연

글에 대해 너무 좋은 것을 느꼈다.
디지털에 대해 배우는 것도 흥미롭지만 진짜 작가처럼 글을 쓰고
첨삭하고 검토하고 또 검토, 또 표지도 만들고 너무 너무 즐거웠
다. 나는 작가가 꿈인데 경력도 만들고 진짜 너무 멋진 동아리 활
동이었다.

김 수 민

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좋았다.
여러모로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

〈디지털 시대, 내 생애 첫 디지털 독립출판〉를 마무리하며

김 예 리

이 프로그램에 참여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성 주 현

독서능력이 많이 늘었다. 친구들과 함께 줄을 쓰고 공유하니
여러친구들의 생각을 알수있었고 내가 책을내니 넘 좋았다.

양 현 준

생각하는 일, 지금까지 일들이 너무 재밌었다.

정 소 연

책을 어떻게 출판하는지 알게되었다.매우 즐거웠고 출판에 대해
자세히 알게되며 책 출판이라는 걸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매우 좋은 경험이었다. 너무 너무 재밌었
다.

참여자 만족도

박 유 송

책을 내는 모든 과정을 아는것, 처음은 호기심과 희망이었다.
드디어 내가 원하는 책을 쓸수있는 책을 쓰니 너무 좋았다.어른이
되어도 계속 책을 쓸수 있는 활동이었다. 정말 재미있었다.

박 효 진

책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배우고 도움이됐다.책을 쓰는거랑 배우
는거랑 선생님들이 책 만드신 거 보니 책을 만드는 게 단순한 과
정 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다.

심 그 린

책을 만드는 방법을 선생님께서 친절하고 열정적으로 재미있게
수업해주셨다.

이 찬 규

창의력을 깨울수 있었고 재밌고 무엇보다 글을쓴다는 점이 좋았
다. 이 활동을 하며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수 있었고 글을 쓴다
는 것에 재미도 있었고 나름 도전 정신 등등을 키울 수 있어서 좋
았다.

부록 1

<디지털 시대, 내 생애 첫 독립출판> 참여자 15명이 출판 기획, 글쓰기, 디자인 작업에 참여하며 함께 만든 디지털 문집

제목	우리의 소원은
글쓴이	일산중학교 1학년 서소민 장유은 신민아 이예지 김유정 황아연 김수민 김예리 성주현 양현준 정소연 박유송 박효진 심그린 이찬규
카테고리	소설, 시
글 주제	#사랑 #판타지 #소원글
책 사이즈	140mm x 84mm
쪽수	80쪽
표지 디자인	일산중학교 이예지
편집	허지수

우리의 소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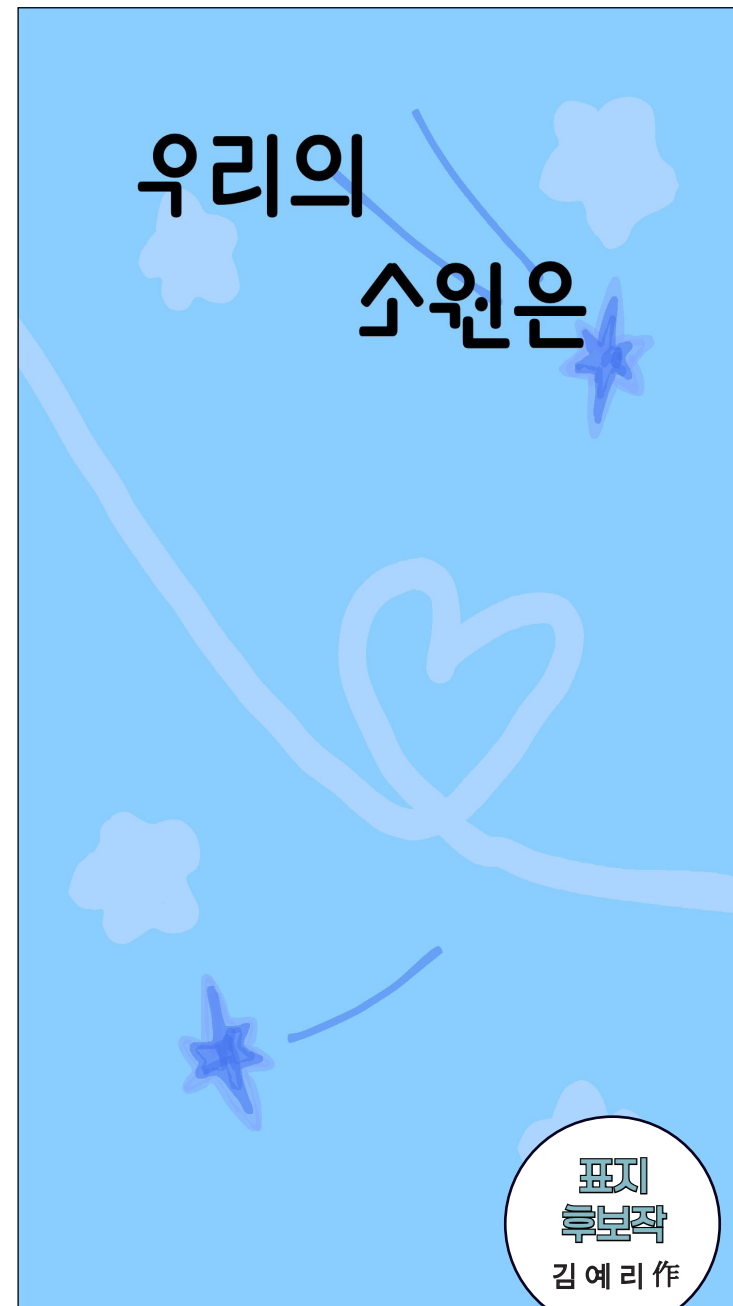
글쓴이

이예지	황아연	성주현
김예리	박유송	심그린
서소민	김유정	김수민
박효진	정소연	장유은
신민아	이찬규	양현준

최종 표지
선정작

이예지 작





[프롤로그]

“덜컹, 덜컹”

탁자 위에서 부산스럽게 마트료시카가 열리고 있다. 도하가 7살 때 아빠가 준 생일 선물이다. 단순한 인형 하나이지만 도하에게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 되었다.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마트료시카. 한 아이의 작은 손은 그 끝으로 다가가고 있다.

[작은 숲속에 너]

작은 숲속에서 아이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으로 두 부모의 손을 잡고 걸어 다니고 있었다. 한눈에 봐도 사랑이 듬뿍 담긴 가정의 목소리이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작은 덩불 사

이에서 한 숨바꼭질 하나에도 와하하 웃음을 터트리며 숲속의 모두를 마법에 걸리게 하였다.

“어디 어디 숨었을까. 우리 도하 찾으러 엄마가 우주 저 멀리까지 가야 하나? 어! 저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남색 한줄기가 보이는데? 저게 뭐지? ... 찾았다! 여기 있었네. 우리 도하!”

“까아! 도망쳐! 히히히”

그렇게 어찌 보면 작은 지구에서 소원 하나가 들려왔다.

“도하의 소원은 지금처럼 모두가 날 좋아하는 거예요!”

한해, 두 해,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의 얼굴에는 꽃이 활짝 피는 대신 짙은 안개가 내려앉는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으로 더는 예전 같지 않은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 적막을 깨려 한 것일지 아니면 오랜만에 예전 그 시절 그때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길 바랐던 것일지. 도하는 낡은 서랍장에서 여전히 반짝반짝 광나는 마트료시카를 꺼낸다.

“덜컹, 덜컹”

탁자 위에서 부산스럽게 마트료시카가 열리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끝에 다다랐을 때 노랗게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이 보인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한 가정의 나들이 사진. 그 사진 뒤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꼬불꼬불 일정하지 않은 글씨체로.

‘도하의 소원은 모두가 날 좋아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초점 없이 흐리멍텅하던 도하의 눈이 분명해졌다. 두 손 위의 사진 한 장만을 쓸쓸히 바라보고 있다. 한번 기억나니 그 뒤 이야기를 끊고 싶지 않은 듯 도하는 그 추억에 더 깊이 스며드는 중이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하에게 그 시절 추억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관심 두는 사람은 얼마 없다. 그저 한 사람의 짧을 수도, 길 수도 있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세상의 1,000분의 1도 차지하지 않는 한 점에 불과하다. 모두의 인생이 판타지 만화처럼 흥미로울 수도, 로맨스 이야기처럼 기쁠 수도, 애달플 수도 없다. 크고 화려한 날개를 가진 나비처럼 하늘을 자유롭게 날 것만 같던 아이가 사각형으로 꽁꽁 언 얼음처럼 틀에 박힌 어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각자 다 다르게 모두의 이야기가 하나둘 완성되는 중이다.

별이 된 사랑

김예리

1장: 별이 된 너

도시의 불빛이 어둠을 삼키는 밤, 은하수는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소운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날, 사랑은 그녀의 삶에서 가장 큰 시험을 던졌다.

소운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 꿈꾸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태현과의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었다.

태현은 회사의 분위기와는 다른,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의 웃음은 햇살처럼 밝았고, 말투는 부드러

웠으며,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교감을 소중히 여겼다. 소운은 그의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태현이 소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소운 씨, 오늘 같이 별 구경 가실래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별을 한참 못 본 것 같아요." 소운은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별 구경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이죠."

2장: 별이 비추는 곳

태현과의 약속은 예상보다 훨씬 더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그들은 도시의 불빛이 거의 닿지 않는 곳으로 향했다. 넓은 하늘에 펼쳐진 별들은 마치 그들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선명하고 아름다웠다.

"별이 참 예쁘죠," 태현이 말했다. "하지만 가끔은 별이 너무 많아서 어떤 별이 나를 위한 것인지 찾기 힘들 때가 있어요." 소운은 태현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별들 중 하나를 찾아야 해요. 그리고 그 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알아내야죠."

그들은 별빛 아래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꿈과 소망을 공유하며 가까워졌다. 태현은 자신이 어릴 적에 별을 보며 미래를 상상했던 기억을 이야기했다. 소운은 그의 이야기 속에서 깊은 공감을 느꼈고, 자신도 어느새 태현을 향한 감정을 품게 되었다.

3장: 운명의 별

시간이 흐르면서 소운과 태현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었고, 서로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갔다. 그러나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들은 더 많은 고민과 어려

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어느 날, 태현은 소운에게 한 가지 비밀을 털어놓았다. "소운 씨, 사실 저는 몇 년 전부터 병을 앓고 있었어요. 별을 보는 것이 제게 큰 의미가 되었던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이 병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지만,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제게 가장 소중해요."

소운은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태현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하며, 자신의 감정이 더욱 강하게 솟구쳤다. "태현 씨, 저도 당신과의 시간이 소중해요. 당신이 어떤 상황이든지 함께할 거예요."

4장: 별의 끝, 새로운 시작

태현의 병은 점점 심각해졌지만, 소운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 소운은 태현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별을 보며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함께 별을 바라보며 소중한 순간을 나누었다.

태현이 별빛 아래에서 눈을 감았을 때, 소운은 그의 손을 잡고 속으로 기도했다. "당신이 이제는 별이 되어, 하늘에서 나를 지켜봐 주세요."

태현이 떠난 후에도 소운은 그가 남긴 사랑과 추억을 가슴에 담고 살았다. 그녀는 태현과 함께한 별을 잊지 않았고, 그의 사랑을 기리며 매일 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소운은 이제 별을 볼 때마다, 태현이 남긴 따뜻한 기억을 떠올리며 그와의 소중한 시간을 떠올렸다. 그들의 사랑은 별처럼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

여름의 끝자락, 소연, 소희, 아인, 지안은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숲속으로 향했다. 이들은 오랜 친구로, 평소에도 자주 모여 자연 속에서 소중한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러나 그 날, 그들이 찾은 숲은 평소와는 달랐다. 나무들이 이른 여름의 녹음을 더해, 하늘을 가릴 정도로 울창하게 자란 그곳은 그들 모두에게 새로운 탐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렇게 깊은 숲속에 들어온 적은 처음이야,” 소연이 주위를 살피며 말했다. “어떻게 여기가 이렇게 신비롭게 느껴지지?”

“맞아, 뭔가 다른 느낌이야. 나만 그런 게 아니라면 좋겠어,” 소희가 눈을 반짝이며 덧붙였다.

“이건 뭔가 큰 발견일지도 몰라,” 지안이 장난스럽게 말했지

만, 그의 눈에는 진지함이 서려 있었다.

“진짜 궁금하다,” 아인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무엇이 이 숲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걸까?”

그들이 길을 따라가던 중, 숲 속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거대한 나무를 발견했다. 이 나무는 수백 년이 넘은 듯한 거대한 뿌리와 넓은 가지를 뻗어 있어, 숲의 중심에서 빛나는 신비로움을 뽐내고 있었다.

“이 나무는… 정말 경이롭다,” 소연이 나무의 근처에 서서 말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들이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던 중, 나무의 껍질에 오래된 문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문자는 마법의 언어로 적혀 있었지만, 그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 ‘진실한 소원을 가진 자만이 이 숲의 비밀을 풀 수 있다.’

“우리 소원 하나씩 말해볼까?” 소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이곳이 정말 신비롭다면,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

“좋아, 나도 동의해,” 소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소연은 잠시 고민한 후, 마음속 깊이 있는 소원을 꺼냈다. “내 소원은… 가족과의 사이가 좋아지는 거야. 요즘 집에서 많이 싸우고, 가족과의 관계가 많이 어려워.”

소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나는…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싶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감이 부족하고, 때때로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

아인은 조용하게 말했다. “나는 예술가가 되고 싶어. 그러나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 늘 두려움이 나를 막고 있어.”

지안은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나는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고 싶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숨겨진 진실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그들의 소원을 들은 나무는 빛을 발하며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숲 속은 신비로운 빛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들이 멀리서나마 보았던 환상적인 장면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다. 각자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세계가 숲 속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소연은 숲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살아나는 환상 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는 가족과의 갈등을 상징하는 장면들이 펼쳐졌고, 그녀는 자신의 과거 행동과 가족의 진심을 직면해야 했다. 그녀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고 가족과의 이해를 쌓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다.

소희는 자신감이 부족한 이유를 드러내는 거울 속에서 자신을 대면해야 했다. 거울 속에서 자신이 바라던 모습과 실제 모습 사이의 간극을 발견하고, 그에 대해 솔직히 마주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이 필요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다.

아인은 자신의 두려움을 상징하는 그림 속에서 탈출해야 했다. 그 그림은 그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상징하고 있었으며, 그는 그것들을 직면하면서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용기를 내어 그림 속의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했다.

지안은 숲 속의 미로 같은 길을 헤매면서 숨겨진 진실을 찾아야 했다. 그는 자신의 호기심과 지혜를 발휘하여 미로를 탐험하고, 그 속에서 숨겨진 비밀들을 밝혀내야 했다.

각자는 자신이 마주한 시련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소

연은 가족과의 소중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고, 소희는 자신의 진정한 자신감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인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술가로서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얻었으며, 지안은 세상의 비밀을 찾기 위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 모든 걸 통해 깨달은 게 있어,” 소연이 말했다. “소원은 단순히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거야.”

“맞아,” 소희가 동의하며 말했다. “이곳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었어.”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 지안이 덧붙였다.

숲을 떠나기 전, 네 친구는 서로의 경험과 감정을 나누었다. 그들은 자신이 얻은 교훈을 서로와 공유하며, 이제는 더 깊이 이해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었다. 숲 속에서의 경험은 그들의 우정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주었고, 그들은 새로운 여정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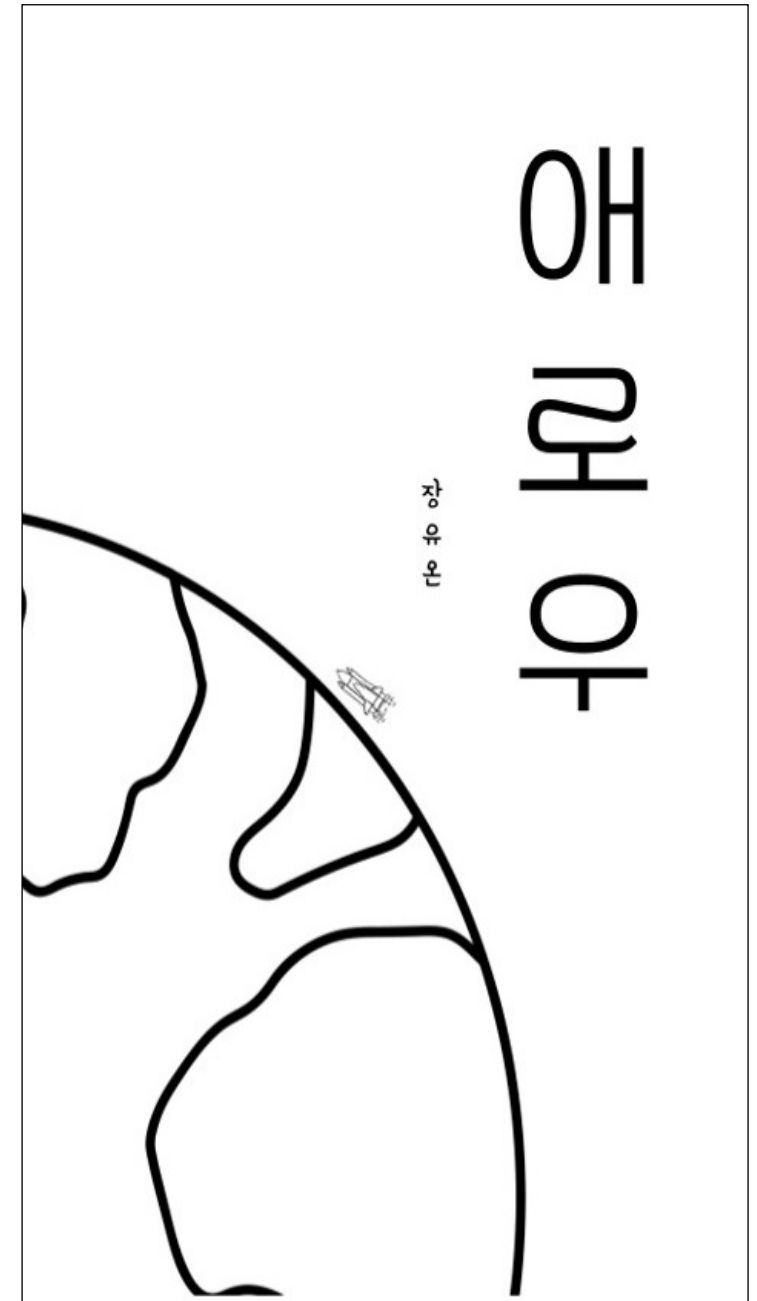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어,” 아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네 친구는 함께 숲을 떠나며, 자신들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함께하는 우정과 함께, 새로운 모험을 시작했다.

부록 2

여름 방학 특강 청소년 5인 독립출판 개별 작품

작가 이름	책 제목
장 유 온	애로우
박 유 송	한걸음 더 나아가면
황 아 연	루나 화이트
서 소 민	나의 여름 이야기
이 예 지	긴 여정 뒤에 얻는 것은 무엇일까



CHAPTER

***에로우**

***뽕둥이 지구**

***탈출선**

***마치는 글**

***01. 에로우**

나는 우주복을 입고 모래사장에 대자로 누워있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백지에 색연필로 이리저리 칠해놓은 것처럼 기억들이 보이지 않는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짧은 머리를 갖고 있고, 나이는 한 서른 즈음 돼 보이고 수

염을 길렀고, 건장한 체격에 키는 꽤 큰 듯하다.

"..."

여기가 어디인지 알아내야 한다.

그것이, 지금 나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다리를 사용해 일어나 본다.

다리가 저리다. 아마 오랜 시간 동안 기절해 있었던 듯했다.

...바다가 보인다.

"으음." 온몸이 쭈신다. 지금 몸 상태로는 물컵도 못 들 것 같다.

난 아무 말 없이 밖을 바라본다.

하늘이 파랗다. 바다는 출렁거린다.

일단 같이 쓸려온 듯한 것을 둘러본다.

나는 그것에 들어가 본다.

아마 이건 우주선인 것 같다. 하지만 전부 부서지고, 기계에 결함

이 생겼다.

조종 패널 근처에 이런 글자가 보인다.

"나사렛 3호." 이것의 이름인 것 같다.

바닥에는 여러 책들이 젖은 채로 나뒹굴고 있었다. '초보 조종사를 위한 나사렛 3호 조종 설명서', '나사렛 3호 설명서', '동면 장치 사용법', '만약 외계 행성에서 표류하였다면', 그리고 '그쪽 인류'라는 인상 깊은 제목의 책까지.

이 책들을 꼼꼼히 읽어 본다.

내 기억을 찾는 데에는 그리 큰 도움이 되진 않았다.

일단 교신을 시도해본다. 이것저것 버튼을 눌러 보았지만 교신은 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리곤 나는 곳 바로 식량을 찾아본다.

이곳저곳 둘러본다. 뒤쪽 트렁크로 가는 것 같은 문이 보인다.

버튼을 누른 직후 고장 난 듯이 끊기며 여성의 목소리가 들린다.

"22번 게 게이트가 열립니다."

나는 트렁크가 열린 직후 안으로 들어가 본다.

여러 상자들이 보인다.

한걸음 더

나아가면

박유송 지음

등장인물

한
새
별

노
주
리

정
다
이

유
가
의

심
포
아

이
복
애

남
찬

입학식-한샛별

3월 2일. 누군가에겐 설렘이 가득한 날이었지만 나는 예외이다. 그래도 그 녀석이랑 반이 떨어진 것만으로도 다행인가? 올해 나는 가람중을 졸업하고 가람고에 입학한다. 오랜만에 교복을 입으니 너무 불편하다. 교복을 옆 학교처럼 후드 티로 해주면 누구보다도 행복할 자신이 있다.

"한샛별! 밥 먹어, 학교 가야지!"

밥 먹고 가면 무조건 늦을 게 뻔했다. 그래도 입학식인데 첫날부터 선생님들에게 찍히는 건 싫었다.

"엄마 나 늦어! 다녀오겠습니다!"

시계는 어느새 8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밥 먹고 가라

는 소리와 함께 집을 빠져나왔다. 천천히 가람고에 가는 길, 가람중 옆에 있어서 등하교 길에는 큰 변화는 없다. 사실 밥을 안 먹고 급하게 나온 건 천천히 등교하고 싶어서다. 이렇게 예쁜 가로수길을 따라 느긋하게 걸으면 마음도 같이 느긋해진다.

'가람고등학교'

어느새 가람고 정문이 눈앞에 있다. 내가 벌써 고등학생이라니.... 중1이 었그제 같다. 가람고에서 나는 1학년 1반 22번으로 배정됐다. 언제나 그렇듯 마지막 번호. 이번엔 제발 학교생활이 편하고 즐거웠으면 좋겠다. 숨을 고르고 가람고에 들어갔다. 반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느 때보다 교실은 고요했다. 일찍 나오길 잘했다고 생각하며 지정석에 앉았다. 마지막 번호라서 자리도 맨 뒤의 구석이다. 눈에 잘 안

떠는 자리. 나의 자리는 여기인 게 느껴졌다. 8시 35분쯤
되자 반에 사람이 가득 차기 시작했다. 몇몇은 친한 친구인
지 시끄럽게 떠든다. 또 다른 몇몇은 벌써 친해졌는지 조곤
조곤 수다를 떨고 있다. 그 밖에도 나처럼 조용히 그림을
그리거나 옆드려 자는 친구도 있었다. 교실은 언제 방학이
었냐는 듯 소란스러운 소리로 가득 찼다. 이럴수록 더더욱
외로워진다. 그래도 어쩌나 방법이 없는데. 한참을 생각하
고 있는데 종이 찼다. 중학교와 다른 경쾌한 종소리다. 곧
선생님이 들어오자, 교실은 금세 조용해졌다. 선생님은 칠판에 크게 '정다이'라 쓰고 날카롭게 말했다.

"안녕, 나는 앞으로 1년 동안 1-1반의 담임을 맡게 된 정다
이라고 해. 다이 쌤이라 부르고. 나는 국어 교사야. 이제부
터 결석, 조퇴 등등 다 나한테 말하면 돼. 그리고 옥설, 남

을 비난하는 말, 이런 비슷한 말을 하면 그날 청소다."

소개부터 이런 말을 하는 선생님은 처음인 거 같다. 곧 선
생님은 손목 시계를 보더니 말했다.

"이제 술술 동아리 정해야 해. 동아리는 총 15개야. 선택지
가 많지? 참고로 나는 그림 동아리 선생님이니 참고하도
록. 국어와 상관없다고 안 들어오는 거 없기다."

선생님은 TV에 동아리 이름과 동아리 설명을 동시에 보
여주셨다. 교실 안이 소란스러워졌다. 그도 그럴까 할 게
만화 창작부, 영화부, 과학 탐구부, 수학부, 오케스트라 부
등등 재밌고 다양한 동아리가 있었다. 고등학교이니 공부
에 전념하는 동아리도 몇몇 보였다. 반의 분위기를 보니 대
부분 만화 창작부나 영화부에 몰릴 거 같았다. 또 그림 동
아리는 예상외로 인기가 없었다. 사람이 없는 게 좋지. 생각



1. 수상한 숲

루나는 수상한 숲을 걷고있다. 이곳은 나무가 무섭게 우거지고, 풀들이 소름 끼치게 높게 자라있다. 루나는 영문도 모르겠고, 기억나는 것이 한 개도 없었다. 그래도 달빛이 있으니 루나는 계속 걸었다. 루나는 돌아다니며 주변을 살폈다.

"야! 너 당장 그곳에서 떨어져!!"

어디선가 들려온 크고 굵은 목소리다. 고요한 숲이 울려 퍼졌다. 루나는 자신의 발 밑을 보았다. 이상한 무늬이다. 달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여러 모양들이 조합되어 만들어져 있었다. 정말 괴상한 모양이었지만 가운데에 달같이 둥그런 모양이 그려져 있으

며 걸을 삼각형, 사각형, 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상한 것들이 달같은 무언가를 둘러싸며 무언가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 둘러싸고 있는 무늬들 사이에는 선들이 있었는데 가장자리로 가면 갈수록 점점 사라졌다. 마치 달이 빛을 잃어간다는 의미인 듯 했다. 루나는 참 지못하고 그 무늬들을 만졌다. 분명히 만지지 말란 뜻으로 누군가가 경고했던 것 같았는데... 역시 누군가가 경고를 했던 대로 큰 일이 일어나 버렸다. 갑자기 무늬들이 번쩍번쩍 빛나더니 달이 빛을 점점 잃기 시작했다. 끝내 달빛은 사라져 버렸다. 어쩌면 루나가 달빛을 잃게 한 것일지도 모른다. 루나는 평소에 달이 줄줄 따라다닌다며 달을 귀찮은 존재로 여겼다. 그런데 무서운 숲 속에서 언제나 따라다니던 달도 보이지않자 너무 무서워 걸음을 멈추고 벌벌 떨고있었다. 그때 누군가가 달이 없어진 것에 대해 불평하며 말했다.

“아잇! 달이 사라졌잖아!”

누군가의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루나를

더욱 무섭게 만들기만 했다.

“어휴... 달 다시 돌이키려면 진짜 힘든데.. 이런 고생을 시키다니.. 누가한짓이야?”

루나는 죄책감이 들었다. 루나가 한 짓이라는 것은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루나는 자신이 한 짓이 맞는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달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 루나는 이제 혼자다. 이제부터는 혼자서 복치고 장구 치듯 혼자서 격려하고 용기를 내야 한다. 이제 루나는 이 요상한 숲을 빠져나가는 것을 혼자서 해내야 한다. 힘들고 무섭지만 루나는 용기를 내기로 했다. 루나는 1분, 1초라도 빨리 이 숲을 빠져나가고 싶었다. 루나는 별 수가 없어 그냥 앞으로 걸었다. 계속 앞으로 걸어갔다. 그 뒤로 채 한시간도 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루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었다.

‘아까 걷던 곳 같은데... 정말 이상해.’

루나는 주변을 살펴보았다. 나무, 풀, 수풀... 또 나무
그리고 또 풀....

‘어...어...엄....움....어... 뭔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구..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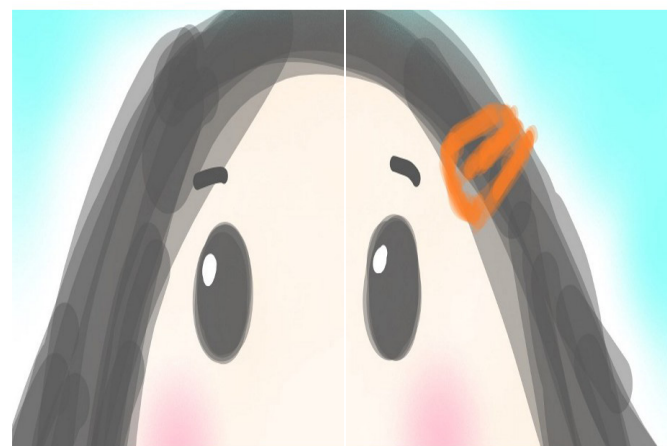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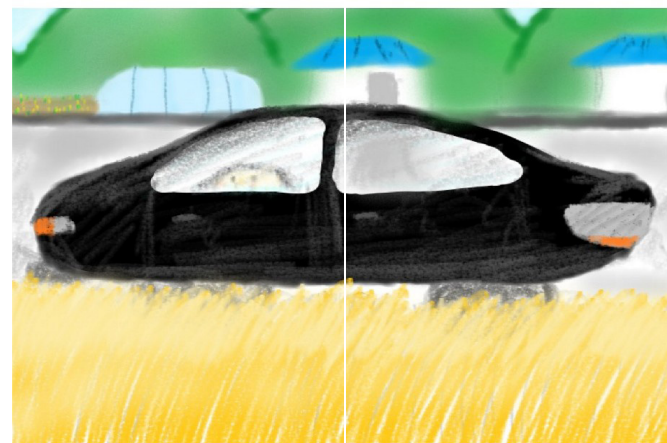
루나는 또 다시 주변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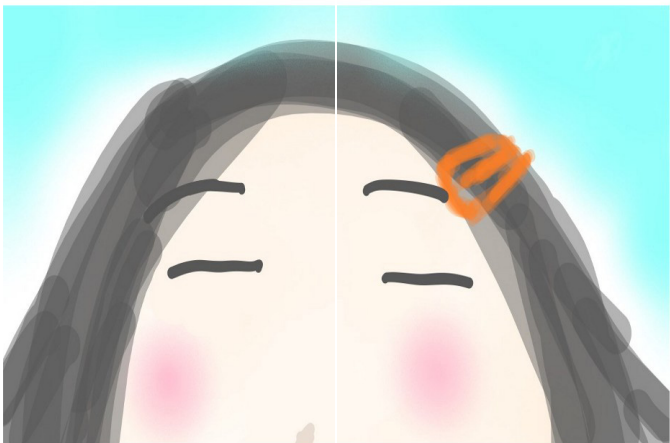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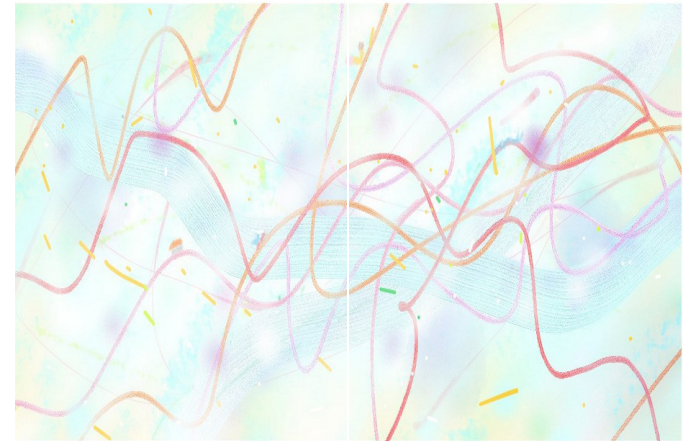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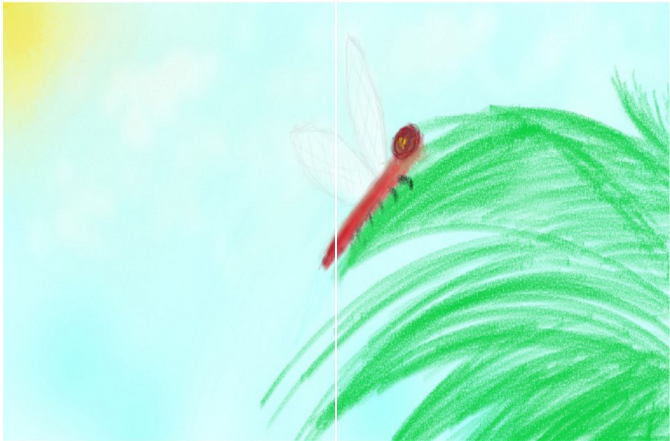
‘나 빙빙 도는 거지??? 맞지?! 계속 같은 곳을 걷
고 있는 거지? 혹시 내가 작은 숲을 계속 도는 걸지
도 몰라. 그럼 출구도 근처에 분명히 있을 거야.’

그 순간 하나의 밝은 빛이 루나의 주변을 맴돌았
다. 약간 불 같이 활활 타오르는 모양의 불빛이었는데
용기를 상징하는 불빛인 듯 했다. 마치 따라 오라
는 듯한 움직임에 저절로 몸이 움직였다. 그 빛은 이
리저리 움직이며 루나를 어디론가 이끌었다. 빛은 루
나가 가지 못했던 색다르면서도 신비로운 숲의 일부
로 향했다. 빛은 그 숲 가운데에 있는 신비로운 문

하나를 가리키며 사라졌다. 루나는 문이 무언
가 특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문 밑에는 아
까 루나가 달을 사라지게 만들었을 때 보았던 무
늵이 있었으니까. 루나는 그 문을 당기려고 했
다. 그러나 문이 쉽사리 열리지 않았다. 어떻게 해
야 할지 알지 못했다. 수상한 숲을 헤매다 보면 누
구나 정신은 반쯤 날아가겠지 하고 생각을 하
며 생각을 정리해봐도 전혀 효과가 없었다. 어찌
면 역효과가 생긴 걸지도 모르겠다. 루나는 자
꾸 애가 타서 머리가 아파왔다. 루나는 정신이 너
무 심란해져서 마음의 안정이 필요했다. 마음의 위
안을 찾기 위해 명상도 시도해보았지만 전혀 집중
이 되지 않을 뿐이었다. 루나는 드디어 달의 소중
함을 깨달았다.

‘흑... 흑... 이렇게 무서울 때마다 달은 나를 위로
해 줬는데...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니? 너무 보
고 싶다.’





긴 여정 뒤에 얻는 것은 무엇일까



글쓴이 이예지

#0 프롤로그

"시연씨! 오늘은 그만하고 들어가." "아 정말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장님!"

딸랑- 출입문 종이 울리고 거리로 나왔다.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내가 나고 자란 도시이자 지금까지 정착해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23년 동안 이 도시에 살면서 깨달은 건 단 하나다. 돈 앞에선 장사 없다. 하지만 더 장사는 세월이다. 이런 자본주의 현대사회에서도 행복을 느낄 요소는 있다. 아주 드문게 문제지만. 나의 행복은 자유희, 갓 대학입학 하고 처음 사귀 내 인생 첫 남자친구이다. 그만큼 우리는 서로를 정말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한 희생을 기꺼이 하는 사이이다.

"띠리리리링-어 유희야. 응. 끝났지."

"시연아..나 좀 데릴러 올 수 있어?"

"응, 당연하지 근데 왜?"

"내가 오는길에 갑자기 사고..."

"뭐? 사고? 안 다쳤어? 유희야? 유희야...?"

"왜 말을 안 해 많이 다친.."

그때 나와 세상은 마치 얼음속에 들어 있는것 같았다.

#1 순간의 운명

"권시연, 2002년 12월 28일 출생. 평안하셨습니다까?"

"네.....?" "무슨 말인지....." 내가 말했다. "오전 09시 37분. 운명하셨습니다." 그가 말했다.

"제가.....요?" 지금 드는 생각은 단 하나. '이 사람 저 승사잔가?' "우와.....피부 하얗다." "네?" "아, 아니에요.....하하" "흠흠...인황사자님과 천황사자님은 곧 오실 겁니다." "아 참, 그리고 저는 인황사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떠났다. '방금 무슨 상황이었지?'

한 3초 지났나... 그는 2명의 창백한 남자와 같이 왔다.

"저기요, 저 혹시 지금 죽은거예요?" 내가 당황스러운 채로 말했다.

"네, 하지만 저희는 죽었다는 표현대신 운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표현은 삼가해주시길 바랍니다." 왼쪽 남자가 말했다.

“아……이거 혹시 그거예요? 시민 반응 카메라 뭐 그런 거?” “저 그런거 안 하니까 같게요.” 한 10걸음 쯤 걸었나…… 갑자기 그 3명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듯 내 앞에 번개처럼 나타났다.

“하…… 이러면 곤란합니다.” 오른쪽 남자가 말했다. 일, 이, 삼. 법칙. 상대를 3초 동안 바라보면 누구든 잠깐 방심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법칙이다. 그런데… 난 한 남자를 1초씩 바라봤나보다. 도망간지 1초만에 포위당해버렸다.

“어디 가십니까?” “저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아니 도대체 나한테 왜” 그제야 주변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세상은 흑백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모든 사람들은 마치 얼음땡이라도 하듯 멈춰 있었다.

“어? 사람들이 왜…다 멈춰있죠?”

“아직도 모르겠나? 여긴 저승이다”

“네? 저승이요? 그러면 …저는 죽은 거…”

“엄밀히 말하면 저승과 이승의 문턱 사이겠지. 인황사자.”

“아니 그럼…저 진짜 죽은거예요?”

“지황사자. 그만하게. 우리 바쁜 몸이네.”

“저기요! 아저씨들!”

“허허, 아저씨라니…사람을 뭘로 보고, 내가 언 1912년에 운명해 고작 23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 했는데, 이 아저씨들보단 낫지 않은가?”

옆의 두명을 가리키며 말했다.

“인황사자. 그만하라고 했잖나.”

“아니, 저기요. 일단 제 말 부터”

“그래도 아저씨까지는 아니지 않나.”

“자네 말투부터가 아저씨를 넘어서 할아버지네.”

“그건 예의를 차리느라 그런 거 아닌가.”

“예의는 무슨 예의같은 소리.”

“저기…저 누구랑 얘기하죠?”

“그마아아아아안!”

제일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이 세상이 떠나가라 호통쳤다.

“천황사자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에헴. 저기요. 저 궁금한게 있는데”

내가 드디어 입을 뗐다.

“진짜…저승사자이신 거예요? 그럼 전 진짜로 죽은 거고?”

디지털 시대, 내 생애 첫 디지털 독립출판

디지털 독립출판, 나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다.

발간등록관리번호 GCYF-2024-06-001

발행날 2024년 10월 29일

발행처 고양시청소년재단
탄현청소년문화의집

발행인 은정규 센터장

담당자 송병준 차장

편집처 오후서재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97-11,
공공시설동 2층

전화번호 031-995-4222

홈페이지 <https://www.gcyf.or.kr/th/>

* 본 사업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우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되었습니다.